

보도시점 2025. 9. 25.(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5. 9. 24.(수)

## 제10차 한중일 환경산업 원탁회의 개최... 탄소중립 달성 방안 논의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추진속도 완화 추세에도 기후기술(재생에너지 등) 투자는 확대... 녹색 분류체계 개정이 향방 가를 것
- 녹색금융은 고탄소 경제 활동에서 저탄소 경제 활동으로 투자를 유도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6일 중국 옌타이시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0회 한중일 환경산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TREB1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The 10<sup>th</sup> Tripartite Roundtable on Environmental Business

이번 회의는 9월 27일에서 28일까지 열리는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6\*)의 부대행사로 마련되며, 3국의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탄소중립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 TEMM: The 26th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Japan

이번 회의에서 △녹색금융, △순환경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정책 및 실천 사례 △환경기술 국제협력 등 4개 세부 의제에 대해 3국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녹색금융 발표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옥수 지속가능성기후센터장은 “최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추진속도 완화 추세로 전 세계 지속가능채권 발행은 위축됐지만, 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기후기술 투자는 오히려 2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과 전환금융지침서(가이드라인) 도입이 기업의 녹색·전환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녹색금융의 진정한 역할은 단순한 ‘라벨링’이 아니라 고탄소 활동은 배제하고, 무탄소 경제활동으로 자금을 흐르게 만드는 것”이라며, “친환경위장 위험(그린워싱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기업과 금융 모두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순환경제 발표에서 이윤진 엘지화학 지속가능담당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자원화와 순환경제 전환을 통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며, 자사의 순환경제 혁신사례를 소개한다.

세 번째 주제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정책 및 실천 사례 발표에서 김연주 한국수자원공사 대리는 물 순환 자원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기후적응 전략을 결합한 물 기반 친환경 경영 실천 방안을 발표하며, 수자원 분야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공유한다.

네 번째 주제인 환경기술 국제협력 발표에서 장원석 효성중공업 부장은 “해상풍력은 기후위기와 시장의 위험(리스크)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효성이 중국 상해전기와 추진 중인 해상풍력 국제협력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화녕 엔타이 바자오 열병합발전소 미세조류 탄소저감 신규사업(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미세조류를 활용하여 발전소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기술을 시찰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정부와 산업계가 녹색금융·순환경제·이에스지(ESG)·환경기술 협력에서 구체적 실행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이 세계 탄소중립 전환을 선도하는 협력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0회 한중일 환경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명규 (044-201-7560)
	녹색산업해외진출TF	담당자	사무관	박정욱 (044-201-7562)
	한국환경산업협회	담당자	사무국장	최진아 (02-6933-9512)

□ 개요

- (회의 기간) '25. 9. 25.(목)~9. 28.(일)
- (장소) Hilton Yantai Golden Coast, Seaview Junior Ballroom A 홀
- (참석대상) <sup>한)</sup>환경부 <sup>중)</sup>생태환경부 <sup>일)</sup>환경성, 각국 담당기관\* 및 연사  
 \* 담당기관: 한) 한국환경산업협회 중) 해외환경협력센터(FECO) 일) 해외환경협력센터(OECC)
- (주제) 탄소중립을 향해: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저탄소 전환 촉진  
 (Towards carbon neutrality: a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promoting green and low-carbon transformation)
  - 녹색금융의 역할(Green finance helps achieve Carbon Neutrality goals)
  - 순환경제 실천 사례(Circular economy practice cases for Carbon Neutrality)
  - ESG 정책 및 실천 사례(Policies and Practice Cases for ESG)
  - 환경 기술 국제협력 사례(Exploration and Experience of International C  
 ooperation Pathway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ies in Enterprises)

□ 회의 일정

구분	세부내용	
9.25(목)	사전회의	3국 좌장 및 정부관계자 실무급 사전회의
9.26(금)	TREB	[세션1] 개회식
		[세션2] 주제1 '녹색금융의 역할' 토의
		[세션3] 주제2 '순환경제 실천사례' 토의
		[세션4] 주제3 'ESG 정책 및 실천 사례' 토의
		[세션5] 주제4 '환경오염방지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사례' 토의
		[세션6] 폐회식
9.27(토)	현장시찰	환경시설 현장시찰
9.28(일)	결과보고	TEMM26 본회의 내 제10회 TREB 결과보고

## 참고

# 화녕 엔타이 바자오 열병합발전소 미세조류 탄소저감 프로젝트 개요

<p><b>프로젝트명</b></p>	<p>(국문) 화녕 엔타이 바자오 열병합발전소 미세조류 탄소저감 프로젝트</p> <p>(중문) 华能烟台八角热电废气微藻固碳联产项目</p> <p>(영문) Huaneng Yantai Bajiao Thermal Power Plant Microalgae Carbon Sequestration and Cogeneration Project</p>
<p><b>현장명</b></p>	<p>(국문) 화녕 엔타이 바자오 열병합발전유한공사</p> <p>(중문) 华能烟台八角热电有限公司</p> <p>(영문) Huaneng Yantai Bajiao Thermal Power Co., Ltd.</p>
<p><b>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조류 탄소포집 프로젝트는 중국 산둥성 엔타이 바자오 지역에서 추진 중인 발전분야 녹색 및 저탄소 전환 시범사업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국영 전력기업인 중국화녕그룹(China Huaneng Group)이 운영 중인 바자오 열병합발전소 내 설치·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파하이웨환경기술(산둥)유한공사(Shanfa Haiyue Environmental Technology (Shandong) Co., Ltd.) 주도로 화녕엔타이바자오열병합발전유한공사(Huaneng Yantai Bajiao Thermal Power Co., Ltd.), 중국과학원 산하 상하이고등연구원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발전소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미세조류 배양에 성공</li> </ul> </li> <li>○ 전력실, 종자 보존실, 실험실, 미세조류 탄소 격리 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소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가 흡수하여 탄소를 고정하도록 설계</li> <li>○ 미세조류는 광합성 효율이 높고, 일반 육상식물 대비 10~50배의 이산화탄소 고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소'를 먹고자란 미세조류는 바이오 비료와 바이오 사료 등 생산에 활용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li> </ul>
<p><b>사진</b></p>	